인천 119 스토리

3
2022

현장 소방

풋내기 소방관의
차량 화재 출동 이야기

안전 소방

캠핑장 갈 때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인천소방본부

목차













인천소방 소식

소방본부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추진배경 계절적 요인(영농철과 건조한 날씨)과 특별행사(선거, 부처님 오신날) 등에 따른 화재예방 필요

추진기간 2022. 3. 1. ~ 5. 31.(3개월)

추진내용

- 취약계층(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 건설현장 및 선거관련 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안전컨설팅

문의사항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32-870-3052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현장지원 모바일 서비스 앱 시범운영



추진배경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보조역할 수행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기여

운영일정 2022년 3월부터 시범운영

대　　상 인천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방　　법 인천소방 모바일 현장지원 서비스앱 '서부소방서의용소방대' 항목신설

주요내용 조직도, 소방용수시설 위치도, 게시판(공지사항) 등 안내

향후계획 현장활동 활용도 및 의용소방대원 만족도 조사 후 인천 전 소방서로 확대 예정

문의사항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32-723-5472

공단소방서

커스텀 소화기 제작 및 보급



* 커스텀(custom) 소화기 : “맞춤형”,“주문 제작한”이란 뜻으로
  인천시민을 위한 소화기를 의미함

추진배경 신발장 안, 베란다 구석 등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소화기를 제작하여 ‘내 곁에 둘 수 있는 소화기’를 보급하고자 함

추진일정
- 2021년 11월 ~ 22년 2월 : 커스텀 디자인 협의(에몬스가구)
- 2022년 3월 ~ 22년 4월 : 커스텀 소화기 제작(제작업체)
- 2022년 4월 이후 : 커스텀 소화기 보급(공단소방서)

제작수량 5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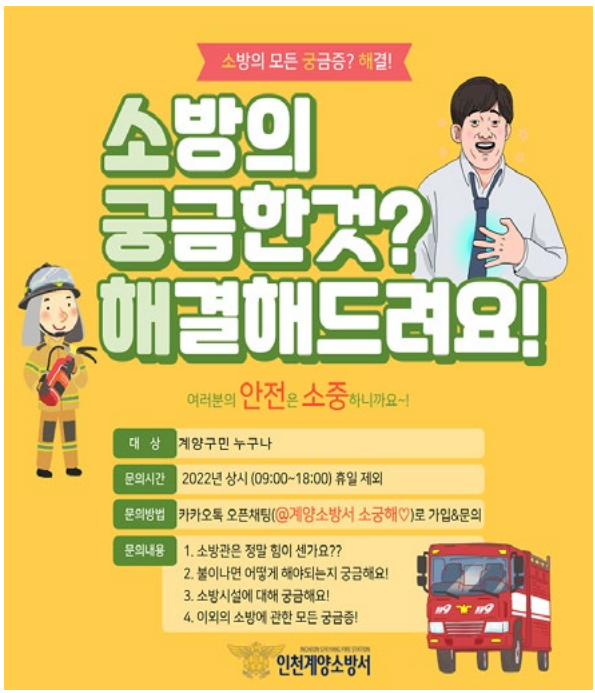
보급대상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보급방법 공단소방서(기간제근로자) 세대방문 무상 보급 및 유관기관 협업

향후계획 일반계층에게 확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저감에 기여

문의사항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032-723-5545

계양소방서 궁금해요? 안전한 생활! '소궁해' 오픈 채팅방 운영



추진배경 시민들의 궁금증을 수렴하고 실시간으로 응답하여 올바른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소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함

운영일정 2022년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휴일 제외 (09시 ~ 18시)

대 상 계양구민 누구나

방 법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소궁해'로 가입·문의

주요내용 화재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소방관직업 등 이외 소방에 관한 모든 궁금증

향후계획 인천시민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

문의사항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032-650-5657

강화소방서

소방차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추진배경 강화도 지역특성 상 산길, 농로 등 좁은 도로와 1인 단독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추진기간 2022년 2월부터 설치·추진

추진대상 양도지역대 펌프차량 등 5대 (단독출동 비중이 높은 지역대 차량 우선 설치)

추진내용 소방차량 운전석·조수석 사이드미러 하단과 차량 후미 사다리 발판 아래쪽 LED조명등 설치

향후계획 현장활동 활용도 및 직원들 의견 수렴 후 확대 예정

문의사항 강화소방서 소방행정과 032-930-5846



구조대원으로 1년을 보내며...

글 영종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전연재

출동을 나가며 기억해야 할 것은 '침착하고, 뛰지 말고, 유기적으로 움직여라!'라는 선배들의 말이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백지가 된다. 심장은 쿵쾅쿵쾅! 다리는 속도제어 실패!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처럼 침착하고 냉철하기 힘들었다.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통제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던져준 선배들의 한마디, 한마디들!
"교통사고 나가서 차 조심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때 장비 잘 챙기고."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나에게는 경험이자 재산이 되었고, 앞으로 구조대원으로서의 청사진이 진행 중이다.

로프를 타자! 구조대원은 로프도 잘 타야 하고 만능이 되어야 해! 나에겐 낯설지 않은 로프였는데 역시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신임 소방사가 되니 내 마음처럼 로프에 매달린 모습이 썩 근사해 보이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며 몸으로만 체득하려니 쉽지 않고 엉성하며 부족함 투성이었다. 밤마다 이 녀석과 친해지기 위해 아무리 만지고 만져도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선배들이 나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다.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땀이 뚝뚝! 일단 로프에 내 몸을 맡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럽고 간결하게 로프에 매달리려 하는 내 몸속에 있는 본능이 꿈틀거렸고, 몸보다는 머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말이다. 그렇게 나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관객이 아닌 팀의 일원으로 로프를 타기 시작했다.

Ing 진행 중이다. 나의 구조대원으로서 업무는 출동을 나가서 요구자를 구조하고, 구조대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구조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들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겐 진행 중이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진행 중일 수 있어서 행복하며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출동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이 또한 무척 과분하고 행복한 일이다. 구조대원으로서 나는 Ing 중이다.



풋내기 소방관의 차량 화재 출동 이야기

글 미추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소방사 홍재영

"오늘 한가하네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야간 근무를 하던 날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10개월, 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이제는 화재 출동 알림도 익숙했다. 이번에도 별것 아닌 화재 오인 출동이라 생각하며 지령 내용을 읽었다. 지령에는 '차량 화재'라고 쓰여 있었다.

약간의 긴장감, 실제 화재였다. 하지만 차량 화재는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 침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많이 들어왔던 터라, 나는 침착하게 소방차에 타 방화복을 입었다. 화재 출동을 나가며 나누는 대화는 늘 비슷했다. 수관 전개, 개인 안전장비 착용 철저, 늘 듣던 말은 나를 더욱 안심시켰다. 그러나 화재 현장인 골목길에 도착하기 직전, 내가 본 것은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수십 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높은 불꽃, 나도 모르게 흥분하여 소리쳤다.

"검은 연기가 보입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본 순간, 손이 바빠졌다. 팀장님께서 무어라 큰 소리로 명령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화재 현장 도착. 방수가 가능한 차량은 우리 차량 외엔 없었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 황급히 내린 직후 내가 본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운 상황이었다. 나란히 주차된 4대의 화물차, 고작 20미터 앞의 그 화물차들이 약 3미터 높이의 불꽃을 토해내듯 뿜어내고 있었다. 뜨거운 화재의 열기, 손발이 떨렸다. 순간, 선임인 박 반장님이 관창과 수관을 들고 화물차 오른쪽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박 반장님을 보조해야 해.' 속으로 생각하며 따라가려던 때, 뒤에서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홍 반장! 수관 하나 더 빼!"

화세가 크니 관창 2개로 방수를 하라는 뜻이었다. 관창과 수관을 잡아들고 화물차 왼쪽 한 편에 섰다. 머리가 하얘졌다. 화재 현장에서 직접 관창을 잡은 적은 처음이었다.소방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방수를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펑!'

화물차 바퀴 터지는 소리가 내 얼굴을 때렸다.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했다. 이후에도 들리는 몇 번의 폭발음, 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대로 주저앉아 방수를 이어 나갔다. 만약 화물차가 폭발이라도 하면 바로 바닥에 넙죽 엎드릴 심산이었다.

나의 첫 번째 방수,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던 찰나에 누군가 내 뒤에 바짝 붙어 외쳤다.

"저쪽을 쏴!"

선임 박 반장님이었다. 화물차 오른쪽에서 방수를 하다가 관창을 팀장님께 넘겨주고 나에게 온 것이었다.



든든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박 반장님은 나에게 관창을 넘겨받고 여유롭게 화재 진압을 이어 나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출동대도 도착하여 굳건히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박 반장님과 나는 앞으로 전진, 또 전진.

화물차의 앞뒤를 오가며 화재를 진압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화물칸은 모두 타버려 그 형태가 없다시피 했고 화물차의 원래 색깔은 이제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마침내 불길이 잦아들고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남았다. 남은 불씨마저 모조리 없애기 위해 화물차 위에 올라갔고, 화물칸의 잿더미들을 파헤치며 방수를 하고 나서야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쓰인 장비들을 모두 소방차에 실었다. 드디어 화재 현장에서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이었다.

안전센터로 돌아가는 차 안, 화물차 화재는 마무리되었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이날의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동료의 든든함.

나는 앞으로도 이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캠핑장 갈 때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글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오수미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철, 가족과 함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이 각광받고 있는 요즈음. 텐트 안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석유난로와 가스난로, 바비큐용 숯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안전장비가 미비하니 사고가 느는 것이다. 이에 영종소방서에서는 캠핑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안전키트 3종(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방포)을 제작하여 캠핑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화재경보기는 연기를 감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정 농도 이상의 일산화탄소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나 중독 시 밖으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며, 소방포는 화재 초기에 덮어 불을 끄거나 몸에 두르고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는 소화용 덮개로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께 봄나들이에 안전을 더해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캠핑 갈 때 꼭 '화재안전키트'를 챙길 것을 부탁드린다.
대여 서비스 신청은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7-6132)로 문의하면 된다.

화재안전키트 3종 ▶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소방포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송도소방서 구조대 소방장 최승영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보고, 수고하는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00학교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의 편지가 송도소방서 119구조대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전달한 선생님은 추운 날씨에도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도소방서 구조대원들은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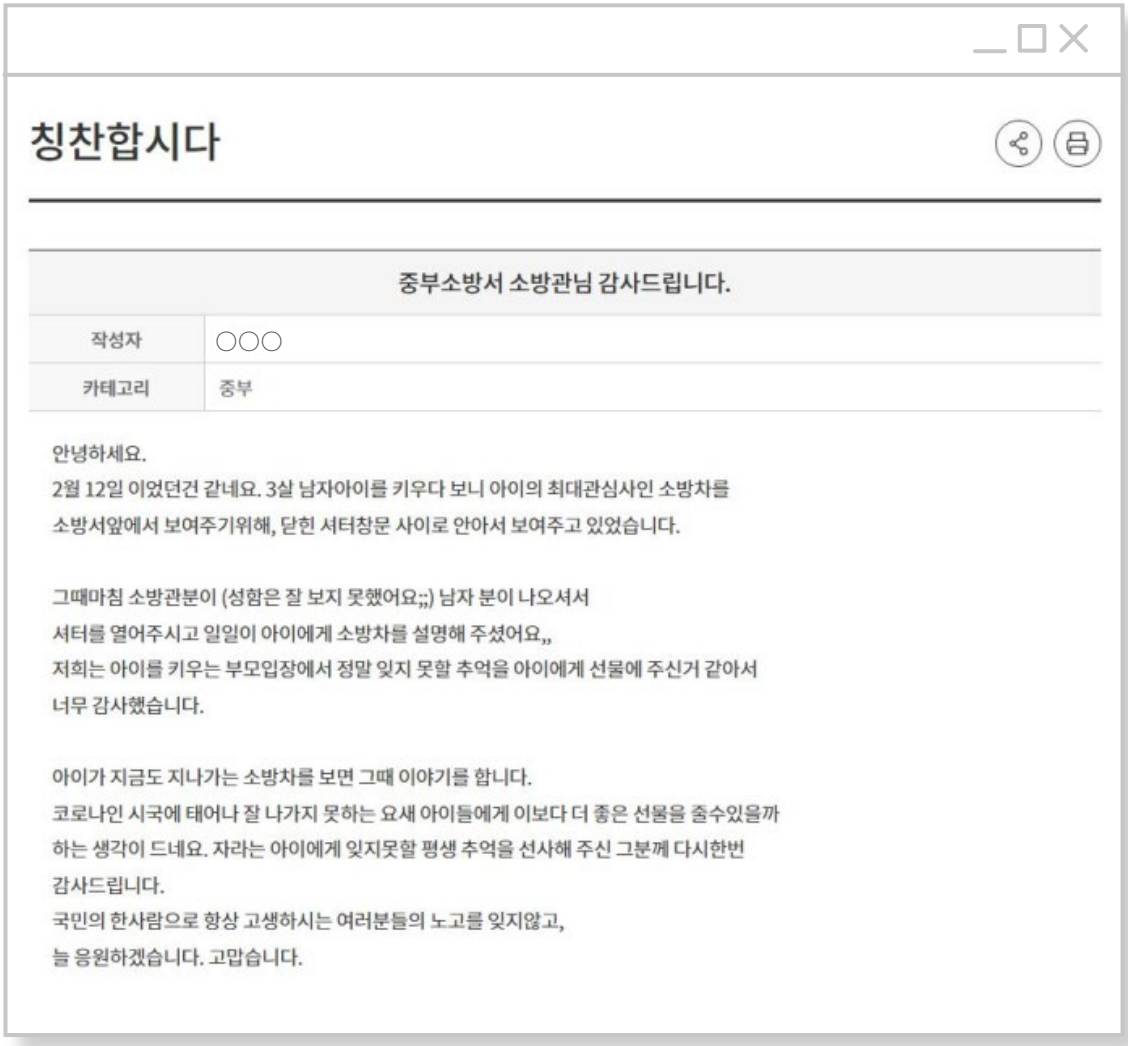




코로나 시국에 어느 무엇보다 더 좋은 선물

글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금정

2월 26일, 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따뜻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글의 주인공은 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교 변성진 반장입니다.



칭찬합시다

중부소방서 소방관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카테고리	중부

안녕하세요.
2월 12일 이었던건 같네요. 3살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의 최대관심사인 소방차를
소방서앞에서 보여주기위해, 닫힌 셔터창문 사이로 안아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마침 소방관분이 (성함은 잘 보지 못했어요;;) 남자 분이 나오셔서
셔터를 열어주시고 일일이 아이에게 소방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아이에게 선물에 주신거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지금도 지나가는 소방차를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인 시국에 태어나 잘 나가지 못하는 요새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수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라는 아이에게 잊지못할 평생 추억을 선사해 주신 그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않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교 변성진

2월 12일, 그날 어떤 상황이었나요?

고가사다리차에 확인할 게 있어 차고로 나가던 중 셔터 창문으로 소방차를 구경하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한 어린아이였는데, 단번에 '아! 소방차를 구경하러 왔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차를 타고 지나가다 소방서를 발견하고 멈춰 소방차를 좀 구경시켜줄 수 있냐는 부탁을 몇 번 받아 본 적이 있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조그마한 차고 셔터 창문으로 소방차를 구경하고 있었고, 차고 문을 열어 줄 테니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간단히 구급차, 지휘차, 고가사다리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아이가 소방차 겉모습만 보았을 것 같아서 펌프차에 적재된 소방호스 및 펌프실도 일일이 보여주며 소방관들이 여기에서 호스를 꺼내어 불을 끄는 것이라고, 아이에게 알려줬습니다.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글을 보고 어떠셨나요?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사실을 전해 듣고 조금 당황스럽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소방관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일인데 칭찬 글이 올라와 쑥스럽네요.

소방관으로서 느낀 점, 앞으로의 다짐 한 말씀 해주세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린이집, 유지원 등에서 견학 및 소방안전체험으로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소방서 체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소방차를 타보고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관이라면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 ‘래더 49’

글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사 고아현

소방관이라면 한두 번쯤은 봤을 법한 영화 ‘래더 49’를 보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동료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영화 ‘래더 49’는 소방관인 우리에게는 늘 일상 같은 장면들이 오고 간다. 주인공이 건축물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 빌딩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구조대상자를 구조하는 장면, 주인공이 소방서에서 생활하는 장면,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순직한 동료를 애도하는 장면까지.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인공도 눈에 돋보였지만, 내 눈에 더 돋보였던 건 주인공 곁에 있었던 동료들이었다. 주인공이 화재를 진압할 때나, 로프를 타고 인명 구조를 할 때 등 곁에서 주인공이 다치지 않도록 보조해주고 안전을 봐주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소방서를 다니는 동료들이었다.



'래더 49'를 보고 나니, 소방학교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76명의 22기 동기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계양소방서로 발령받아 관서실습을 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머릿속에 떠올랐다.

위에서 언급한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날 많은 분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동료와 함께 일하고, 힘들 때 잠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고민을 나누는 소방서의 모든 일상이 소중해 보였다.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을 애정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로 거듭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영화 '래더 49'였다.





인천소방본부

발행처 인천소방본부(예방안전과) **발행일** 2022년 3월 29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기획편집 정상기, 양경철, 김선태, 유지연, 박형서
디자인 · 기획 · 편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https://www.s-creative.co.kr